

# 2016서울디자인컨설턴트 서포터즈 하반기 워크숍 추진계획

2016 . . .

문서번호	시민서비스디자인팀 -1819	선임	팀장	본부장	단장	대표이사	
결재일자	2016.10.21.	10/18 손현정	10/19 안재선	10/21 윤대영	10/21 유석윤	10/21 이근	
공개여부	공개	협 조					
방침번호	대표이사방침 제 (3198)호						

추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서울디자인컨설턴트 운영계획(대표이사방침 제504호, 2016.2.25)</li> <li>- 2016서울디자인컨설턴트 서포터즈 운영계획(대표이사방침 제119호, 2016.1.14)</li> <li>- 2016서울디자인컨설턴트 서포터즈 교육계획(안)(대표이사방침 제1547호, 2016.5.30)</li> </ul>		
대 내 외 협력현황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워크숍 추진 계획 검토	추진계획 내용 공유 완료
	시민서비스디자인팀	시민서비스디자인팀 팀원 워크숍 참석	참석예정
사 업 비	'12년 575백만원' (11년 430백만원)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토여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
	전 문 가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
	옴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
법 령 및 기타 고 려 사 항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기 타 :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타 자 원 의 활 용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관 계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 련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2016서울디자인컨설턴트 서포터즈 하반기 워크숍 추진계획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1913송정역시장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견학을 통해 동(洞)마을 활성화의 선사례 현장체험 및 예술을 통한 사회 변화 예측 진단 등 창의적 발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함

## 1. 추진목적 및 내용

- 동(洞)마을 활성화 타 지역의 선사례를 직접 둘러보고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마을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요소를 발굴하고자 함
- 송정역 시장의 청년상인들과 예비 창업자들의 특색과 차별성을 체험하여 서포터즈의 향후 취업 및 창업 아이템 아이디어 제공
- 서포터즈와 서울디자인재단 시민서비스디자인팀과 함께 관심분야에 대한 '씹크앳톡' 시간을 마련하여 지역 현장 근무자의 생생한 정보를 교류하고자 함
- 37개국 97작가가 참여하는 비엔날레 전시를 통해 시민서비스디자인팀 사업 추진 내용의 다양성 추구, 사회 변화 예측을 진단하고자 함
  - 도심공공유니버설 서비스디자인
    - The labor point of view : 노동의 관점에서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예술 전시 관람
  - 도시재생연계 공공미술사업
    - New subjectivite : 새로운 주관성 기존 패러디임에 관한 예술적 도전 전시 관람
  - 동(洞)지역 활성화 컨설턴트&서포터즈 사업
    - 주제전시에 대한 기획과정과 예술과 사람 사회와의 다양한 소통과정 참고
  - 도심창조산업디자인
    - 전체적인 전시공간 구성 연출 컨셉 작품 밀도 및 조도 차이 등 참고

## 2.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6년 **10월 21일(금)** 08:00~23:00시, 1일
- 장 소 : **광주비엔날레, 1913송정역 시장**
- 참 석 자
  - 시민서비스디자인팀 9명  
(안재선팀장, 권희대수석, 송재명책임, 윤진환책임, 박동수책임, 최숙경선임, 한보람선임, 손현정선임, 김세훈 매니저)
  - 서울디자인컨설턴트 서포터즈 20명
- 상세일정

일정 및 시간		진행 내용	비고
10. 21 (금)	08:15~10:08	ktx 용산역 출발 -> 광주송정역 도착	ktx 551열차, 12호차1B~12호차7D
	10:15~11:03	*셔틀버스 일정상 빠른 이동 필요 ktx송정역->비엔날레정문(셔틀버스)	지하철2번출구 방향 택시승강장 맞은편 아시아문화전당 앞 탑승
	11:10~12:30	- 서포터즈&서울디자인재단 씽크앤틱 타임	- 점심식사 (바오바 / 정문앞 062-513-9282)
	12:40~16:00	- 광주비엔날레 이동 및 관람	- 비엔날레 도슨트 투어(12:50) 소요시간 70~90분
	16:25-17:00	비엔날레->송정역시장으로 이동(셔틀버스)	이동시간35분
	17:00-20:40	2013송정역시장 시장 기획자 미팅 시장 청년창업 우수디자인 점포 방문	- 시장견학 - 저녁식사 (일송정 떡갈비/떡갈비골목)
	20:40-21:20	ktx송정역으로 이동(도보)	이동시간 10분
	21:25~22:58	ktx송정역 -> 용산역 복귀	ktx 566열차, 16호차1B~16호차7D

■ 소요예산 : 삼백십팔만삼천육백원정(₩3,183,600)

구분	금액
교통비	ktx비엔날레 패키지상품 : 76,600원*27명 = 2,073,600원
다과 및 식비	15,000원*27인*2=810,000원
기타 여비	300,000
<b>총 계</b>	<b>3,183,600</b>

-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붙임 : 광주비엔날레, 송정역시장 내용

[ 광주비엔날레 전시구성 ]

전시주제

-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해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예술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탐구와 기대
-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예술의 근본적 역할을 재확인하고 예술의 상상력과 미래와의 역동적인 연계성을 전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
- 압도적인 주제전시를 목표하기 보다는 전시기획과정에서 일어나는 예술과 인간, 예술과 사회와의 다양한 소통과정을 중시

전시주제의 의의

- 제8기후대(The 8th Climate)’는 ‘12세기 페르시아 철학자에 의해 착안되고,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앙리 코르뱅 (Henri Corbin)에 의해 체계를 갖춘 용어로 상상의 세계(imaginal world)’라는 개념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해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예술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탐구와 기대

전시구성

1) 본전시 (Main Exhibition)

- 전시기본개념 및 구성내용

- 지면의 위와 그 밑 (above and below ground): 땅, 천연자원 연구
- 노동의 관점에서 (the labor point of view):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예술
- 분자와 우주 사이 (between molecules and cosmos): 원소와 우주
- 새로운 주관성 (new subjectivitie): 기존 패러다임에 관한 예술적도전
- 추상성 (the right to opacity): 현대미술의 추상성
- 신기술과 예술 (becoming file): 뉴 테크놀로지와 현대미술

## - 전시공간 구성

- 전시공간인 비엔날레전시관 각 갤러리는 작품밀도 및 조도 차이를 두어 다양한 공간'분위기' 조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의재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우체길미술관 등 지역 내 문화공간 및 사립미술관으로 전시공간 확장

## 전시공간 구성

- 전시실별 독립적 공간 연출을 통해 실별 새로운 경험 유도 전시실별 공간 연출 컨셉
  - 제1전시실: 다수의 서로 다른 성격의 작품 병치로 강력한 첫인상유도
  - 제2전시실: 영상작품 설치공간. 가벽 설치 최소화, 초지향성 스피커 활용
  - 제3전시실: 각 작품들이 자체구역(Zone) 형성
  - 제4전시실: 밝은공간 연출. 작품의 소수의 작품으로 추상과 연관된 작품
  - 제5전시실: 폴린 보드리&레나테 로렌스(베를린)의 대형 영상설치작

## ■ 전시연계프로그램

### 광주비엔날레포럼(Gwangju Biennale Forum)

- 일 정 : 2016. 9. 2(금) ~ 9. 4(일), 3일간
- 주 제 : To All the Contributing Factors (한국어 확정 중)
- 구 성 : 기조발제 및 토론, 소그룹 워크숍, 통합세션, 무등산 등반, 출판 등
- 기획방향 : 국내외 소규모 미술문화기관 및 단체들이 광주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상호관계 맺기, 매개 실천의 플랫폼 마련

### 월례회 (Monthly Gathering)

- 지역협력큐레이터와 연계를 통해 비엔날레 참여작가, 큐레이터, 미술문화 활동가들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연구 및 교류의 플랫폼 제공
- 구성: 미테-우그로 예술서가, 독서모임, 작가스크리닝,작품포커스 등

### 인프라스쿨 (Infra-school)

- 광주비엔날레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외 예술계 교육적 기반 및 플랫폼 마련
- 협력학교: 조선대, 홍익대, 서울대아시아연구소, RAT, Inter-asia school 등
- 구성: 강연, 아티스트 토크, 컨퍼런스 등

### 비엔날레와 함께 차를 (Teatime with the Biennale)

- 지역주민과의 소통 창구마련을 통한 광주비엔날레 관심 고조 및 예술의 사회 매개로서 역할 실천과 지역민의 연대 고취
- 광주비엔날레 인근상가 주민 및 교육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만남의 자리 실행

### 포트폴리오 리뷰전

- 광주·전남 기반의 청년작가 발굴·지원 프로젝트
- 단발성 전시 참여기회 제공이 아닌 큐레이터 토크, 스튜디오 방문 등 실제적 지원제공

### 지역작가 특별전

- 광주미술협회와 연계하여 지역작가 전시참여기회 제공을 위한특별전,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 예정

## 기념전

- 지역갤러리 활성화를 위한 우수전시 선정하는 갤러리 기념전,  
2016광주비엔날레 주 행사와 함께 홍보 및 재단 로고 제공 등

## [ 1913송정역시장 ] 침체된 시장에서 청년 창업의 메카 핫플레이스 변신까지



'송정역전 매일시장'이라고 불리던 이 시장은 1913년 송정리에 기차역이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둘 장꾼들이 들어서면서 시작된 난장이었다. 이후 명맥은 유지해왔지만 여느 재래시장들처럼 세월의 변화를 견디지 못했다. 대형마트에 손님을 뺏기면서 가게들은 줄고 젊은 사람들보다는 인근 나이든 주부들이 간간히 장을 보가는 그야말로 쇠락해가는 장이었다. 문을 닫은 가게들도 많았다. 그러던 시장의 변화를 현대카드가 끌어냈다. 광주광역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중소기업청이 힘을 보탰다

송정역전 매일시장 프로젝트를 이끈 현대카드 최현희 과장은 '바꾸기 위한 변화가 아니고 지키기 위한 변화'로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한다. 그 시작은 시장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입구에 '1913 송정역시장'이란 네온간판을 붙였다. 오랜 역사를 깃발로 삼고 송정역시장의 전성기였던 70~80년대 시절을 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카드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하나인 재래시장 살리기는 강원도 봉평장의 변화를 통해 이미 그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그 이전보다 더 봉평장다운 봉평장으로 거듭났다는 평가와 더불어 장을 찾아오는 발길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실질적인 성과도 냈기 때문이다.

송정역시장을 둘러보며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은 '변한 듯 변하지 않은' 최소한의 변화에 있다. 기존가게들의 형태를 물론 낡은 건물들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만 단순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새로 걸고 물건들의 진열대와 배열이 바뀌었다. 적절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어루만져지자 낡은 건물은 빈티지한 세트장처럼 멋스러운 변신을 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온 상인들의 라이프스토리는 상점 밖에 사진과 더불어 전시가 되어있다. 그 역시 과하지 않다.

청년디자이너가 디자이너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써 디자인이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자로서 역할하는 디자이너에서 벗어나야 함) 이를 통해 사업 내 디자인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디자이너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해의 폭이 확대 될 수 있다. 송정시장의 사례는 디자인이 재생사업에 효과적이고 완성도있게 적용된 사례로 디자이너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송정시장 프로젝트에는 디자인기획, 스토리텔링, 공간, 인테리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자립을 위한 노력 등이 어울어져 있는 사례여서 다양한 분야의 있는 서포터즈들이 이 사례를 통해 디자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